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보아도 아름다워

마음먹는 대로 얼굴이 변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지 이 세상 종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그 생김새가 달라지는데, 각쟁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각쟁이 얼굴로 변하고, 흉측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흉측한 얼굴로 변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한고로 선한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 종교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 피의 원리를 논하면서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꼼꼼하면서 얌전하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과격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혈액형에 의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 피의 작용이 마음작용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인데,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은 무식한 세상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마음을 조성해주는 고로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말을 이 사람이 20년 전부터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미국의 록펠러 대학교 교수들이 이 사람이 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죠?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피가 변하므로 세포가 변하고 세포가 변해서 몸이 변한다."는 말을 교수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 사람이 한 말씀을 그 교수들이 오늘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분신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게끔 한 것이지, 그 교수들이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악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면 피가 썩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해도 피가 썩고, 놀래거나 실망을 해도 피가 썩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걱정만 해도 피가 썩는 고로 근심걱정을 하면 얼굴이 검어지고 주근깨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이는 독소물질이 화내는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말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20년 전부터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근심걱정을 하거나, 놀래거나 실망을 하면 피가 썩는 고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썩은 피가 조성하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썩은 피가 오래 되면 암세포가 이루어지면서 그 암세포가 점점 번식을 하게 되고, 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영생

사람이 마음을 바로 먹어야 오래오래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지 근심걱정을 한다든지,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자존심 부린다든지,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하면 피가 썩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무슨 생각을 해도 피가 썩는다고 말했죠?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되고 발생한 병균이 썩은 핏속에서 또다시 번식을 하면서 병균이 점점 많아지는 고로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살면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 없고, 늙으려야 늙을 수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면 마귀의 전당인 몸이 하나님의 전당으로 변하는 고로 그 몸이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음이 고운 사람의 얼굴은



구세주 호희성님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고로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서 늙었다고 해도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죠? 마음만 잘 먹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고, 저절로 떼부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잘못 먹기 때문에 복도 못 받고 고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팔자가 좋다, 팔자가 나쁘다고 말을 하는데 얼굴만 보면 팔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상쟁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것은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는 고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요 회생의 신인 고로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사형수를 보게 되었는데, 며칠 후면 사형 집행이 되어 죽을 사람인데도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형집행이 되던 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사람속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인 고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왜 죽일까? 저

런 아름다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은 확실히 마귀세상이요구나. 앞으로는 이 세상에 사형 제도를 없애야겠다."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교도소에서 수 십 년간 징역을 살면 개과천선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모범수로 징역을 살면서 그 형이 감면되어서 무기징역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20년이 넘어 석방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20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간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또 살인죄를 범한 전례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맞았으면 맞았지 절대로 상대방을 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수가 석방되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재범했다는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살아있는 사람을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전두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우굴우굴하게 교도소에 많았지만 한 명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징역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의 옆방에 있었던 고로 그 사람을 오래 지켜봤지만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사형집행으로 죽게 되니,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허탈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때리면 죽는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살을 맞아서 죽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주먹질을 함

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아서 죽은 시체를 장작에 태우는 광경을 본 고로 사형 집행장을 지날 때면 아주 끔찍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는 많지만 생명만은 마워해서는 안 되는 고로 이 사람이 앞으로 천지개벽을 하면 아무리 죽을죄를 진 사람이라도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인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무리 부부지간에 오래 살을 붙이고 살았어도 벗은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것은 사람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인데,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할 수가 없는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기왕 세상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회생적인 마음이 있는 고로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죽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고 상대방을 편안히 쉬게 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면 보통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되는 고로 이긴자 하나님이 되고, 이긴자 하나님이 되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인 고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주님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9장 사사시대》



7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 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가운데 단지파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장자 상속과 함께 이삭에게 임하였고 이삭의 하나님이 장자를 계승한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이 창세기 4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인봉되어 있기에 단지파 민족에서 출현한 구세주에 의해서 인봉된 뚜껑을 열어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고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로 탈출에 성공한 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40년간 살다가 지도자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땅) 분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단지파를 위해서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2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에서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을 양분하여 므낫세지파가 차지하는 특이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단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끝단을 양분하여 차지하더라도 다른 지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지파가 가나안 북단에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여 그곳에 단 성읍을 건립함으로써, 단지

파를 중심으로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가 하나로 뭉친 군단이 조직되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40년 동안 법계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3개 지파로 묶어서 동서남북에 배치할 때, 북쪽을 담당하는 북군에 해당되었던 단지파 중심으로 2개 지파(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가 포함된 것(민 2:25-31)과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남쪽에 단지파의 기업이 강력한 해상세력의 블레셋과 대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관여하셨음에 분명합니다. 이는 구세주를 배출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선민 중의 선민이 되는 단지파 민족이 이민족의 어떠한 침략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 경험을 통한 연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에 입성한 지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단지파 기업의 소라 땅에 삼손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단지파 백성들이 강력한 블레셋 민족의 복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단지파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 초기에 단지파는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라이스 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에브라

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회유할 당시에 은장색이 만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미가의 우상숭배의 물증으로 압류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면에는 청동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대장장이를 포섭하여 함께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삿 18:7).

가나안 남쪽에 단지파 기업이 되는 소라 성읍과 마하네단에서 블레셋의 복진을 막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가나안 북단의 단 성읍에서 청동제 무기를 만들어 아셀지파의 두로 항구에서 뱃길로 단지파의 음바 항구까지 운송하여 지속적으로 풍부한 식량과 함께 창고를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5대 도시에 속하는 가사 성읍에 쉽게 잡입할 수 있었던 것도 단지파의 음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블레셋의 가사 항구에 도달하여 외국인 상인으로 행세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여관에서 외국인 상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청녀가 삼손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녀와의 잠자리를 거부함으로써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 아챌 삼손은 밤중에 몰래 나와 성 문쪽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동료들과 함께 모두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유다 진영의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약 60Km의 먼 거리를 힘겹게 걸어갔던 것입니다(삿 16:1-3).*

